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6년 포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고후 5:18-21, 창 33:1-4)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이사야**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사 48:12-22)

There Is A Better Way

(Is. 48:12-22)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교만한 마음이 인류의 원죄이고 타락의 원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원죄는 에덴 동산에만 있던 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불순종함으로 저주와 사망을 택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복과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사 48:1)

이스라엘은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는 진실과 공의가 없습니다. 스스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과 생명 대신에 저주와 사망의 길을 택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의 힘줄이요 네 이마는 놋이라"(사 48:4).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황소고집을 부리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더디 깨닫고, 더디 믿으며, 더디 순종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완고하고 강박한 우리들을 다시 한 번 그의 넓은 품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사 48:12).

하나님은 당신의 안타까운 음성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애틋한 마음을 느껴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거룩함에 있어서 완전무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불에서 택하였노라"(사 48:10).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상황 곤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절대자 앞에 속히 구원해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고난과 환란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시간들이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단련시키신 후에는 우리를 정금 같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복과 생명, 저주와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다, 부디 생명을, 복을 선택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The arrogant mind of people who want to be like God is the original sin of mankind. This sin causes corruption. It is thought that this mind indicates my life is mine. This original sin was in the Garden of Eden but also lurks in our daily lives. God consistently says that we should not choose curse and death by obedience but blessing and life by obedience.

"Listen to this, O house of Jacob, you who are called by the name of Israel and come from the line of Judah, you who take oaths in the name of the Lord and invoke the God of Israel-- but not in truth or righteousness-- (Is 48:1).

The Israelites came from the waist of Judah. They were the people who prayed with the name of God. But they were not in truth and righteous in their lives. Even though they were holy people and relied on God, they did not obey God's word and took the curse and death instead of blessing and life.

"For I knew how stubborn you were; the sinews of your neck were iron, your forehead was bronze' (Is 48:4).

Like this, have we not lived before God by displaying persistence? Have we not lived by realizing late, by believing late, and by obeying late?

And yet, God invites us who are hard-hearted and obstinate in his wide breast once more.

"Listen to me, O Jacob, Israel, whom I have called: I am he; I am the first and I am the last" (Is 48:12).

God pleads with us to hear his aching voice. It is God who is complete. It is God who is absolutely perfect in the power, wisdom, love, and holiness. If we have a faith, by obeying him, we naturally come to God who is almighty God, and loves us till the day he dies.

"See, I have refined you, though not as silver; I have tested you in the furnace of affliction" (Is 48:10).

There is a saying, 'There is no atheist in the trench.' It means that if anyone who is confronted by a difficult situation, in other words, by the crisis of hardship, they have no other way but to pray to God to be saved, and to receive response. Affliction and hardship make us pray.

My beloved Christians,

Although we have difficult times, we should take a victory. God never gives up on us. After he refines us, he will use us like pure gold.

By reciprocating the voice of love from God as curses and death are put on you, so that you may choose life and his blessing,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a blessed God's people looking the glory of heaven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겨울 성경학교 · 수련회

디아스포라부 : 2월 13일(토), 사랑부 : 2월 14일(주) / 서울교회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2월 26일(금)~27일(토)	서울교회	바르게 믿어요!	박노철 목사 구본혜 전도사
유치부	2월 26일(금)~27일(토)	서울교회	순종할래요	박노철 목사 양세라 목사
유년부	2월 26일(금)~27일(토)	서울교회	터치 & 액션	박노철 목사 고수은 전도사
초등부	2월 26일(금)~27일(토)	서울교회	터치 & 액션	박노철 목사 심진희 목사
청년1부 청년2부	2월 18일(목)~ 20일(토)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	청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박노철 목사 정요셉목사 (현 안양제일교회 대학부 총무) 서준권 목사 정대은 목사 장재원 전도사
사랑부	2월 14일(주)	서울교회	믿음으로 순종해요	박노철 목사 박영준 목사
에바다부	2월 27일(토)	서울교회	사랑과 섬김	박노철 목사 임규현 목사
디아스포라부	2월 13일(토)	서울교회	복음으로 하나되게 하소서	박노철 목사 서명철 목사



지난 1월 29일(금) '다락방 리더 수련회'가 있었다. 16교구 12다락방(다락방장 : 조경숙 집사) 모임시연과 15교구 8다락방장 신혜진 권사의 사례 발표와 함께 박노철 담임목사의 특강이 이어졌다.

다락방 리더 훈련 개강

2월 3일(수) 수요일에 배후

동절기에 잠시 방학하였던 다락방 리더 훈련이 2월 3일(수) 개강한다. 금주부터 다락방 모임도 다시 모인다.

세례식 신청 마감

2월 세례식이 2월 21일(주일) 1, 2, 3부 예배 시 있다.

세례/입교/개종/ 유아세례/대상자 문답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607호)은 2월 7일(주일), 문답 총정리는 2월 14일(주일) 1, 2부 예배 후 607호에서 있다. 대상자는 필히 참석 바란다. 문답은 2월 14일(주일) 오후 1시 50분 602호에서 있다.

*기타 궁금사항은 세례교육부(607호)로 문의바람

부부 힐링 특강

오늘 오후 3시 30분 / 702호

장년2부(지도: 양세라 목사)에서는 31일(주)에 30대, 40대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 힐링 특강"을 오후3시 30분에 702호에서 진행한다. 30~40대 부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기록물 제출공고

교회는 지난 한 해 작성된 각종 기록물들을 제출 받는다. 당회이하 모든 부서의 서거나 기록담당자는 2015년 한 해 동안 기록한 예배일지 및 회의록, 출석부, 보고서, 주보, 인쇄물, 주요사진 등 각종 기록물을 1월말까지 순례자실(704호)로 제출해 주기 바란다. 또 2015년 이전 과거 기록물도 보관중인 것이 있으면 반드시 제출해 주기 바란다. 컴퓨터파일인 경우엔 cyc@hanmail.net으로 올려주기 바란다. 파일 제목에는 부서명과 기록물명, 담당자명을 써주기 바란다. (예: 초등부 회의록 홍길동)
담당: 권재현 집사(멀티미디어단 전산 및 사료팀장)
노창훈 집사 (순례자 차장)
최영철 집사

이종운 원로 목사의 크리스찬의 신앙곡선

시험에서 이기는 비결 - II

(고전 10:12-13)

1. 자신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기는 비결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간에게는 유전적인 죄가 있다. 그 원죄가 인간 안에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죄의 성향이 있다. 이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죄성이 있다는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책임을 마귀에게 전가 시킨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짓게 되어 있는 불쌍한 존재들이다.

"너희가 그런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이란 도망갈 길을 주신다는 말이다. 고전 6:18에는

음행을 피하라고 했고, 딤후 2:22에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자 옷이 찢어질만큼 급하게 도망 쳤다. 그러나 다윗은 밤새바를 보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왕궁으로 초대 함으로 죄를 지어 요셉과 다윗은 엄청난게 다른 길을 가게 됐다. 그러므로 자신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피하는 것이다.

2.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기는 비결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체계를 말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 대신 시기, 질투, 미움, 교만, 분냄, 다름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사람을 가리켜 세상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다고 한다. 이런 것들은 다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결과들이다. 이런 시험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다. 또 하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자기 몸을 바치는 것이다(롬 12:1-2).

3.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기는 비결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첫째,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약 4:7). 이 말씀을 두 말로 집약하면 복종과 대적이다. 이 두 가지가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성도의 전략이 된다.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를 그리스도께 철저히 복종시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길밖에 없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칼이나 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도 하나님과 무시로 동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인격이 깨끗해지고, 신앙이 깨끗해지고, 삶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4. 결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감사함으로 받고, 세상적인 시험이 올 땐 선을 적극적으로 행해서 운운하고 겸손한 생활을 더해야 하며 자기 몸을 비워 하나님께 더 헌신하므로 승리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이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여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자. (다음주 계속)

미안마 비전트립 보고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박경은 성도 (2교구)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를 주제로 1월 20일 시작된 미안마 선교 사역이 지난 27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박영준 목사님을 비롯한 17명의 단원이 참여한 이번 미안마 비전트립은 예년과는 다르게 교회학교팀, 교사양성세미나팀, 요리학교팀의 세 개 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교회학교팀은 총 6개의 교회를 방문하였고 교사양성세미나팀과 요리학교팀은 미안마기독교신학교(MCS)에서 각각 3일간의 세미나를 진행 후 교회학교팀에 합류하여 함께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교회학교팀은 찬양과 율동, 성경이야기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복음의 불모지인 미안마 땅에 복음의 씨앗을 전했습니다. 사역지에서의 노방전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 더 이상 인원을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예배가 부흥하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사양성세미나팀은 올해 처음 기획된 사역으로, 현지교회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심진희 목사님의 지도하에 사영리 책자 만들기, 성경이야기 스토리 텔링, 인형극 활동 워크샵 및 발표회를 통해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여러 교육능력을 전하고 배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교회학교가 단단히 뿌리내리지 못한 미안마에 짧게나마 진행된 교사양성세미나팀의 교육을 통해 현지 교회학교가 태동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리학교팀은 최소희 권사님과 김순영 권사님을 필두로, 현지 목사님 사모님을 대상으로 한국 음식을 함께 만들어 보고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요리 학교팀의 활동은 단지 한국 음식을 배우는 것에 그

치지 않고, 이를 통해 현지인들의 자립과 복음전파에 도움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불 앞에서 수고해주신 덕분에 가장 많은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사역지로 향하는 곳곳에서 미안마의 만연한 불교문화를 마주할 때 마다, 이렇게 착박한 믿음의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현지 기독교인들의 모습에 크게 은혜 받았습니다.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뜻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현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으며, 하나님께서 미안마를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2016년 미안마 비전트립을 위해 열과 성으로 후원해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미안마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강좌부 개강

신앙강좌부가 성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송용훈 집사 (신앙강좌부 부장)

2016년 신앙강좌부가 오늘부터 원종천 목사님을 모시고 매주일 2부 예배 후에 12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약 1시간 동안 601호실에서 찬양과 목사님의 강의로 진행 됩니다. 신앙강좌의 주요 내용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주제로 선정하여 진행 됩니다.

2015년에는 "성령의 은사", "시편의 영성", "사후세계", "믿음으로 사는 삶", "결혼", "가정", "일" 등과 같이 우리가 일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궁금해 하고 또한 무엇보다 신앙인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 올바로 알아야할 성경적 지식을 다루어 성도님

들의 많은 호평을 얻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원종천 목사님의 명강의와 섬김위원들의 헌신으로 수료자가 전년도 80명에서 152명까지 늘어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16년에도 2015년에 이어 다양하고 핵심적인 신앙적 주제를 성경해설과 함께 원종천 목사님의 강의를 진행될 예정입니다. 봄학기 개강은 1월 31일(주일)이며 6월 26일까지 22주간 진행되고, 가을 학기는 7월 31일(주일)부터 12월 25일(주일)까지 역시 22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교회의 성도님들이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많은 분들과 신앙강좌부에서 영의 양식을 마음껏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한해를 보내고



백난희 권사 (15교구 2다락방장)

2015년 다락방 새해 계획을 세우던 중 우리 15교구 2다락방에 소속된 성도님들 모두가 성경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음을 알고 부다락방장의 제의로 성경 1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정해진 1주일의 말씀 분량을 나누고 누구랄 것도 없이 흔쾌히 그 진도에 맞추어 나가니 어느덧 성경 1독을 다락방 식구 전체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일정에 차질이 있었지만,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지난 한 해 열심히 말씀 읽으며 달려왔습니다.

다락방 모임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며, 1주 동안 읽고 감동 받은 부분에 대해 서로 나누고, 말씀을 읽고 잘못 이해했거나 설교 말씀을 통해 다시 알게 된



말씀들에 대해 서로 질문하고 대화하는 시간들은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다락방 식구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피할 길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며 우리 다락방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간이 외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대한 근본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소외된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날 일어 죽을 것 같은 외로움, 즉 냉동고처럼 얼어붙은 마음은 상대방을 공격하고, 찌르며 마음의 상처를 냅니다. 특히 부부싸움은 자녀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는데, 마치 전쟁터에서의 죽음의 공포경험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서울교회의 가정상담부에서는 부부가 좀 더 건강하고 성숙한 연인처럼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한 “부부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첫째, 배우자에 대한 상호 이해와 수용을 증진하고, 둘째, 배우자에 대한 공감능력 증진, 셋째, 배우자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자각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높이고, 넷째, 배우자와의 갈등해결 능력을 증진, 다섯째, 배우자와의 정서적인 체험을 나눔과 친밀성을 증진함으로써, 부부 적응과 결혼생활에서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원가족과의 관련된 역동적인 감정적 전이와 문제 인식 및 이해와 정서적, 영적성장을 위한 용서, 치유, 소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의: 010-9470-9332(이계자 권사)

농어촌 100교회 후원자

손종근 최은석(0.5) 강택근 정유선(1) 육순자(0.5) 노문환 장정화(1) 김원중 이갑연(0.5) 김동봉 임미경(1) 차도훈 남태영(0.5) 한광훈 장미자(0.5) 김지희 2(0.5)

비전2020운동 후원자

우현주(1) 강신행(2) 양춘경 이인숙2(2) 임병우 임혜림(1) 추석우 박정애(1) 김지숙(1) 차동길 송명심(3) 김진달(1) 김영정(1) 유철 김고은(2) 민영기(1) 안홍희 전화진(1) 이갑진 박우주(2) 김지수12 김순진(1) 박미영(1) 오만옥(1) 장성자1 이상욱(1) 민의량(1) 김민주(1) 김민선(1) 김장섭 최춘숙(1) 이계홍(1) 전시경(1) 한경신(2) 김선자(2) 김동봉 임미경(5) 이갑연(2) 김성은 성경요한(2) 김영표 권소희(1) 이승연(1) 이승희(1) 류총기(1) 차도훈 남태영(1) 손종근(1) 장덕(1) 최은석 육순자 최유현(5) 노문환 이영욱 최금봉(1) 유안순(1) 김경자 6(1) 제 1 권사회(2)

한가족 한선교사 후원자

안홍희 전화진(1) 주차흠 윤계진(1) 민의량(0.5) 이지은 15(1) 전시경(1) 김지숙(0.5) 전광영(1) 우현주(1) 월병희(1) 이윤지(0.2) 김지수12 김순진(0.5) 김장섭 최춘숙(0.5) 임총식 신선주(1) 박세아(0.5) 위현주3 이은미(1) 박경정 이인보(1) 송행희(0.5) 김건희(0.5) 최유현(0.5)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2월2일(화) 북한인권과 한국교회연합 심포지움 개최설교 및 특강을 한다. 2월4일(목) 한국군선교연합회 이사회에 참석하고 2월6일(토) 사랑의 쌀 운동, 몽골IU이사회에서 각각 설교한다.

■ 주일식당봉사 : 비전전도회(1.31) 루디아, 도르가전도회(2.7)

■ 금주의 식사 제공 : 교회제공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미안마 비전트립팀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2. 노약자 심방을 통하여 오랫동안 병상에 계신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3. 금주에 개화하는 다락방 모임에 모든 다락방 식구들이 참석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부부 집단상담” 참여자 모집합니다



이계자 권사 (상담부)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평생을 변함없이 사랑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생각만큼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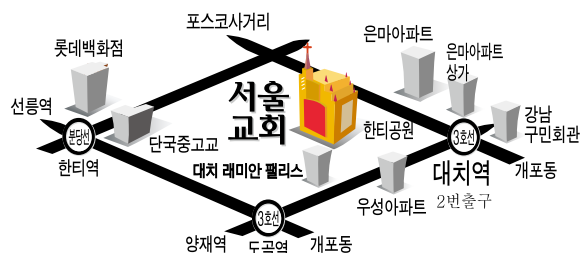
본인은 근 15년을 상담을 해 오면서 많은 문제의 가정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부부문제, 혹은 불륜의 문제, 자녀문제, 이성문제, 성문제, 고부문제 등등. 어쩌면 우리의 삶이란 문제의 연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최초로 결혼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창 2:18). 독처하는 것, 인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부예배	오전 9시
	II부예배 (영어예배)	오전 11시 20분
	III부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수요예배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새벽예배	I부예배	오전 11시
	II부예배	오후 7시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당 1층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1층

교회 오시는 길



서울교회QR코드

